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2년 6월 19일
제1901호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도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 연령회장: 홍익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부속가〉

찬양하라 시온이여 목자시며 인도자신 구세주를 찬양하라.
정성다해 찬양하라 찬양하고 찬양해도 우리능력 부족하다.
생명주는 천상양식 모두함께 기념하며 오늘특히 찬송하라.
거룩하온 만찬때에 열두제자 받아모신 그빵임이 틀림없다.
우렁차고 유쾌하게 기쁜노래 함께불러 용약하며 찬양하라.
성대하다 이날축일 성체성사 제정하심 기념하는 날이로다.
새임금님 베푸잔치 새파스카 새법으로 낡은예식 끝내도다.
새것와서 옛것쫓고 예표가고 진리오니 어둠대신 빛이온다.

그리스도 명하시니 만찬때에 하신대로 기념하며 거행한다.
거룩하신 말씀따라 빵과술을 축성하여 구원위해 봉헌한다.
모든교우 믿는교리 빵이변해 성체되고 술이변해 성혈된다.
물질세계 넘어서니 감각으로 알수없고 믿음으로 확신한다.
빵과술의 형상안에 표징들로 드러나는 놀랄신비 감춰있네.
살은음식 피는음료 두가지의 형상안에 그리스도 온전하다.
나눔없고 갈림없어 온전하신 주 예수님 모든이가 모시도다.
한사람도 천사람도 같은주님 모시어도 무궁무진 끝이없네.
선인악인 모시지만 운명만은 서로달라 삶과죽음 갈라진다.
악인죽고 선인사니 함께먹은 사람운명 다르고도 다르도다.
나뉘는성체 조각마다 온전하게 주 예수님 계시움을 의심마라.
겉모습은 쪼개져도 가리키는 실체만은 손상없이 그대로다.
천사의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 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저희먹여 기르시고 생명의망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전지전능 주 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다해)

제 1 독 서 창세 14,18-20 |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다.

화 답 송 시편 110(109) | ◎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제 2 독 서 1코린 11,23-26 | 여러분은 먹고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복 음 루카 9,11ㄴ-17 |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¹¹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 주셨다.

¹²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열두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¹³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은

“저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사 오지 않는 한, 저희에게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¹⁴ 사실 장정만도 오천 명가량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대충 신 명씩 떼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여라.”

¹⁵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모두 자리를 잡았다.

¹⁶ 예수님께서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¹⁷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나 되었다.



바오로 말 콘텐츠

복음 묵상

제1독서의 멜키체덱은 성경에서 언급된 최초의 제사장입니다. 임금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사제였던 그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람을 축복합니다. 멜키체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여겨지며,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시편 110 [109],4)라는 메시아적 신탁은 마침내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실현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당신의 몸과 피를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바치신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대사제이시며, 새 계약의 중개자가 되십니다.

제2독서는 초대 교회에서부터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성찬 제정문 가운데 하나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몸소 성체성사를 세우신 내용을 전합니다. 여기에서 ‘기억’(ἀνάμνησις, 아남네시스)이라는 말은 이천 년 전의 사건을 그저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현재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사제를 통하여 봉헌되는 미사에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거행된 완전하고도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제사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라는 표현은 성체 거양 다음에 “신앙의 신비여!”라는 사제의 선창과 함께 바치게 되는데, 이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현재, 예수님의 죽음을 전하는 과거, 그리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미래, 곧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이 지금 이 순간에 공존하며 천상 잔치의 영원한 기쁨을 드러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입니다. 앞서 헤로데는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루카 9,9) 하며 예수님에 관해서 질문하였는데, 우리는 오늘 복음을 읽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하느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복음의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동작들, 다시 말해서 빵을 ‘들고’, ‘축복하시며’, ‘떼어’, ‘나누어 주셨다’라는 네 동사가 예수님의 성찬 제정문과 엠마오 발현 이야기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쓰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동작의 연속성’을 통해서 오천 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성찬례를 제정하시고, 부활하신 다음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식탁에 앉아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신 분께서 바로 같은 예수님이심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사제를 통해서 거행되는 미사 안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 영원한 생명의 빵이신 주님’(요한 6,51 참조)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어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이 놀라운 신비로 우리를 당신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과 더욱 깊이 일치하며 우리도 누군가에게 생명의 주님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또 다른 빵’이 되도록 합시다. <이민영 예레미야 신부>

묵상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

- 성찬례의 끝에는 오직 사랑만 남을 것입니다.
성체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해 쪼개진 빵이 됩니다.



우리는 성찬례에서 사랑의 하느님을
관상하고 경배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쪼개지
않으시고 당신 자신을 쪼개십니다.
주님께서는 희생제물이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십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주십니다. 성찬례를 거행하고 살기 위해, 우리 역시 이러한 사랑을
살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형제들에게 닫혀있다면
주일에 성체를 떼어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장엄한 성찬례의 끝에도,
오직 사랑만 남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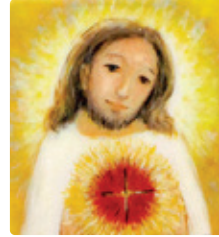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의 성찬례가 세상을 바꿉니다.
성체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 쪼개진 빵이 되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며
열정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목마름을 일깨우고 물을 길는,
물동이를 메고 가는 교회가 됩시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모든 이가 들어올 수 있는 널찍하고 환대하는
방이 되기 위해, 사랑 안에서 마음을 활짝 펼칩시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느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도록,
연민과 연대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떼어 나눕시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오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하실
것이며, 세상의 생명을 위한 음식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늘나라 잔치에서 주님의 얼굴을 관상하며
끝없이 기뻐할 그날까지 말입니다.

6월 24일(금)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성심 대축일

(사제 성화의 날)



〈예수 성심, 최봉자 수녀 작〉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성심
대축일은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공경하며 그 마음을 본받고자 하는
날이다. 이 대축일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다음 금요일에 지내는데,

예수성심이 성체성사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예수성심에 대한 공경은 중세 때 시작하여 점차
보편화되었다. 1856년 비오 9세 교황 때 교회의 전례력에
도입되었으며,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대축일로 지내고
있다.

한국 천주교회는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권고에 따라,
1995년부터 해마다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성심 대축일에
'사제 성화의 날'을 지내고 있다. 이날은 사제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 선포의 직무를 더욱 훌륭히 수행하는 가운데
완전한 성덕으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날이다. 또한 교회의
모든 사람이 사제직의 존귀함을 깨닫고 사제들의 성화를
위하여 기도와 희생을 바치는 날이기도 하다.

사제들을 위한 기도

-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 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축성하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 주소서.
-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 주소서.
-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 ◎ 아멘.

1 축하합니다! 첫 영성체식

- 일시 : 6월 19일(일) 오전 10시 미사 중
- 27명의 어린이들이 첫 영성체를 합니다.
어린이들이 성체성사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이신부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첫 영성체를
통해서 주님의 축복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리셉션 : 오후 12시(하상관 #110)

2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 6월 19일(일) 오전 11:40 (하상관 #4,5)

3 연령대별 신자 모임에 함께해 주세요

- 하상회 월례회의**
- 대상 : 70세 이상의 남성 신자
- 일시 : 6월 19일(일) 오전 11:30 (B-3,4)
- 안나회 월례회의**
- 대상 : 65세 이상의 여성 신자
- 일시 : 6월 19일(일) 오전 11:30 (A-1,2,3,4)
- 루카회(60대 남녀 교우) 월례회의**
- 일시 : 6월 26일(일) 오전 11:30 (B,3,4)
- 요한회(50대 남녀 교우) 월례회의**
- 일시 : 6월 26일(일) 오전 11:30 (B-1,2)

4 올드레아 회합

- 일시 : 6월 24일(금) 오후 8시 (A-1,2,3)

5 K o C 월례회의

- 일시 : 6월 26일(일) 오전 11:30 (A-1,2)

6 7주간의 여름 성경 특강

- 기간 : 7월 6일(수) - 8월 17일(수)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8:30
- 내용 : 인물 중심으로 한 성경 이야기(7강의)
- 강사 : 정인준(파트리치오) 신부님
- 문의 : 교육부 (703) 627-1932 / (703) 850-2968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 영산성당 신축헌금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정성이
성전의 모퉁이들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알링턴 교구
2022 WorkCamp
참가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CVO WorkCamp 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성인 Crew Leader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모든 학생들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봉사를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일정 : 6월 19일(일) - 6월 24일(금) ◆

2022년 WorkCamp 참가자 명단(학생)

Matthew Han, Jeffery Pak, Rachel Lee,
Hyunil Choi, Francis Soonmin Kwon,
Jaime Haeun Kwon, Willam Eun Park,
Minseo Kim, Adam Christopher Hwang

Camp Crew Leader/Contractor(성인)

Jennifer Hwang, Kunhee Koh,
Yongwoo Stephano Kwon,
Andrew Oh, Chongho Cho, Dongchul Kang

Arlington Diocese Prayer
for WorkCamp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to serve You through those
I serve at WorkCamp.

Help me to accept the graces you offer
through my time of humble service to
those in need.

Bless those I serve, that they may feel
Your presence.

Remind me that I am Your hands and feet
on earth.

Please help me to imitate your servant,
St. Joseph the Worker, in all the work
I do to grow in holiness and virtue,
and to let it all be for Your greater glory.

Amen.

교황님의 6월 기도 지향 가정들

전 세계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일상생활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체험하여 성덕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합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2년 6월 12일(삼위일체 대축일)

주일 헌금	\$ 6,284.00
교무금	\$ 7,350.00
교무금(신용카드)	\$ 4,190.00
2차 헌금	\$ 13,213.50
감사 헌금	\$ 390.00
온라인 봉헌	\$ 2,950.00
합계	\$ 34,37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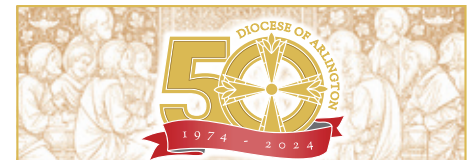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6월 23일(목) 오후 5:00-6:00
6월 24일(금) 저녁 8:00-9:00
6월 26일(일) 오전 6:00-7:00

- 성 정 바오로 성당 주일 미사 강론
- 윤원진 신부의 위대한 성인들 :
“성인중의 성인 - 노아”



DIOCESE OF ARLINGTON

1974-2024

알링턴 교구 설정 50주년

알링턴 교구는 2024년 교구 설정
50주년 희년을 준비하며 신앙의 기본 진리에
대한 영적, 지적 쇄신을 향하여
3년 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Year One (2021.11.21 시작) “Remember”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구의 과거를 돌아보고 기억합니다.

<https://www.arlingtondiocese.org/jubileehome/>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